

융복합시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임상호
산업진흥원 책임연구위원

Study on the Impact of Various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on Formation of Economic View in an age of convergence

Sang-Ho Lim

Korea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Chief Researcher

요약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관련 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2015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아산시 거주자와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16부를 분석하였다. 경제 관심도가 청소년기 경제 경험과 경제관 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경제 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 이해도($\beta = .485$), 합리적 소비태도(.458) 및 창업의지(.293)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관심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경제관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체험형 청소년 경제교육이 경제관 형성에 효과적임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기 경제경험, 경제관, 융복합,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창업의지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on forming economic view. Survey was carried out for Asan-si residents and online homepage visitors in Sep. 2015, 116 case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est in ec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and formation of economic view, and analyzed differences depend on economic knowledge learning path. Various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positively affected economic comprehension,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start-up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est in the economy was verifi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knowledge learning path also affected differences of economic view by the group. These study results suggest that experiential youth economic education program will be effective on forming economic view.

Key Words :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Economic View, Convergence, Economic Comprehension,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Start-up Intention

Received 16 September 2015, Revised 20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Sang-Ho Lim
(Korea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Email: ipi@dreamwiz.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경제 경험은 특히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경제과목 교육을 제외한다면 청소년기에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과목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응용력을 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정숙(2009)은 학생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기존의 교과서 위주의 이론적 수업 방식에서 체험활동 중심의 생활경제교육으로의 교수·학습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1].

융복합 시대에 앞으로는 기존의 학교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자발적 경제학습, 용돈관리 경험 등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경제경험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관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 경제 관심도가 청소년기 경제 경험과 경제관 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집단별 경제 관심도,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및 창업의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 주요 경제관련 경험으로는 경제교육, 아르바이트, 자발적 학습, 금전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교육에 관하여 전홍택(2008)은 개인의 인지발달 과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내용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하여 익혔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체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국가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인적자본임을 강조하였다[2].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구효진, 최진선(2006)은 아르바

이트 증가 추세는 현대사회의 소비현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소비태도 및 진로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생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3].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대하여 Knowles(1975)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을 계획하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통해 학습결과를 스스로 자가진단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하였다[4].

금전관리에 대하여 Fitzsimmons and Williams(1973)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자원으로로서의 금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금전관리는 저축과 소비를 위해 금전을 배분하고 구매와 소비 및 지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으며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지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5].

또한 경제관 형성과 관련해서는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창업의지가 주요 하위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경제 이해도(Economic Literacy)란 경제 문제와 관련된 특정 과제를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유형으로 인식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고 대차 대조표를 이해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Kotte and Witt, 1995). 박상은(2014)은 보다 심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 이해도는 경제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고 이해를 적용하여 경제적 분석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6,7].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김성량(2007)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사용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어릴수록 습관의 조건화가 쉽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기본적 성향이 6세 이전의 아동기에 결정됨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합리적인 소비태도의 습관화도 어릴 적에 더 잘 이루어지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8].

창업의지에 대해 Krueger and Carsrud(1993)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의지란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이라고 설명하였고, 김홍수(2015)는 창조경제시대에 융·복합적 사고와 창의

적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세스의 개발을 강조하였다[9,10].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경험과 경제관 형성의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오순희(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경제윤리의식, 즉 더 합리적인 소비태도를 보이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11].

추영경(2004)은 학교에서 경제 교과를 통한 소비자 교육 실시 이후 학생들의 타인을 고려한 소비태도, 미래를 고려한 소비태도, 국가의 경제 및 정책을 고려한 소비태도, 환경을 고려하는 태도, 경제적 의무 이행 태도 등 바람직한 소비 태도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됨을 발견하였다[12].

구효진, 최진선(2006)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욕구를 해결하고 동시에 더 많은 저축을 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돈의 지출과 저축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3].

마혜영(2008)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과 성적이 높은 경우,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경제이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이해도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합리성이 높았으며 학교외의 경제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적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김성자(2009)의 연구에서 용돈기입장을 활용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유아는 일반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유아보다 경제에 대한 기본개념 인식이 더 높았고, 화폐개념 인식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함께 용돈기입장을 기록하는 체험적 경제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14].

한국화(2010)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5개월간 용돈기입장쓰기를 지도한 후 지도를 받지 않은 학급과 비교한 결과 용돈기입장쓰기를 실천한 아동들은 계획능력, 용돈관리능력 및 반성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15].

박우철(2010)의 연구에서는 직장근무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았으며, 창업가특성에 관해서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비전이 높고 대출 이상이 전문대출 이하보다 적극성이 높은 경력, 나이,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다[16].

홍정표(2014)는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력지향성 중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율지향성과 사업지향성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연령과 창업교육여부 또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7].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경제신문(www.uel.net) 홈페이지 방문자와 오프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거한 12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16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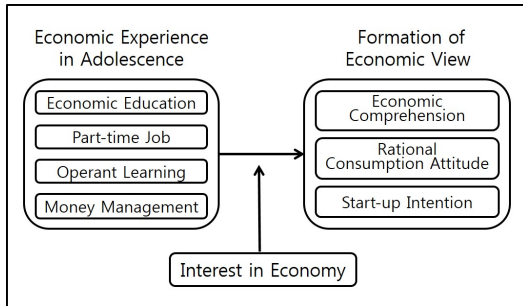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시기로 정의하였으며 청소년기의 경제관련 경험이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및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경제 관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라 어떠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2문항으로 인구 통계적 특성 6문항, 경제지식 습득경로 1문항, 청소년기 경제관련 경험은 구효진, 최진선(2006)을 참조하여 5문항, 경제 관심도, 경제 이해도 및 합리적 소비태도는 우혜연(2014)을 참조하여 각 5문항, 창업의지는 박우철(2010)을 참조하여 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주요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3,16,18].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였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인과관계와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t-test와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를 실시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과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로 보면 여성(72.4%)이 남성(27.6%)보다 많았고, 나이별로는 10대(32.8%)–20대(30.2%)–40대(22.4%)–50대이상(7.8%)–30대(6.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41.4%)–대졸(31.0%)–대제(21.6%)–대학원졸(6.0%) 순이었으며, 현재 거주지는 중소도시(63.8%)–대도시(28.4%)–지방(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인 월소득 300–500만원(31.9%)–150–300만원(29.3%)–500만원 이상(25.9%) 순으로 나타났다.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경제이해도(.886), 창업의지(.847), 경제관심도(.827), 합리적소비태도(.785), 청소년기경제경험(.615) 순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KMO) 측도가 .6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이 $p=.000$ 의 유의확률을 보여 모형이 적합한 타당도를 보였다.

5.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결과 경제관심도와 경제이해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610으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의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수가 0.4 이상 0.7미만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a)	2580	.751	1.00				
Interest in Economy(b)	2621	.799	.52*	1.00			
Economic Comprehension(c)	2320	.755	.45*	.61*	1.00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d)	3064	.815	.48*	.53*	.42*	1.00	
Start-up Intention(e)	2498	.860	.23*	.28*	.18	.144	1.00

** $p<.01$

5.4 집단별 평균차이검증

5.4.1 성별에 따른 경제관심도 · 경제이해도 · 합리적소비태도 · 창업의지

t-test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합리적 소비태도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합리적 소비태도가 높았으며 경제관심도, 경제이해도, 창업의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ormation of Economic View depend on Gender

Categories	M		SD		t	p
	Male	Female	Male	Female		
Interest in Economy	2.54	2.65	.766	.814	-.646	.519
Economic Comprehension	2.44	2.27	.831	.724	1.037	.302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2.79	3.17	.779	.807	-2.305*	.023
Start-up Intention	2.47	2.51	.942	.834	-.206	.837

* $p<.05$

5.4.2 나이에 따른 경제관심도 · 경제이해도 · 합리적소비태도 · 창업의지

분석 결과 40대-50대 이상-20대-10대 순으로 경제관심도를 높게 인식했고, 50대 이상-40대-10대 순으로 합

리적 소비태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이해도 및 창업의지는 나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Formation of Economic View depend on Age

Independent	Dependant	M	SD	F	Post Analysis
10s(a)	Interest in Economy	2.168	.553	6.843***	d>e>b>a (Dunnett T3)
20s(b)		2.669	.767		
30s(c)		2.650	.499		
40s(d)		3.088	.855		
> 50s(e)		3.025	.982		
10s(a)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2.626	.892	6.740***	e>d>a (Scheffe)
20s(b)		3.120	.674		
30s(c)		3.150	.543		
40s(d)		3.344	.631		
> 50s(e)		3.844	.727		

***p<.001

5.4.3 학력에 따른 경제관심도 · 경제이해도 · 합리적소비태도 · 창업의지

분석 결과 대졸이 고졸 이하보다 경제관심도가 더 높았다. 또한 대학원졸-대졸-고졸 이하 순으로 합리적 소비태도가 높았고, 대학원졸-대졸-고졸 이하 순으로 창업의지를 더 높게 인식했다. 반면, 경제이해도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ormation of Economic View depend on Education

Independent	Dependant	M	SD	F	Post Analysis
< High School(a)	Interest in Economy	2.265	.571	6.211***	c>a (Dunnett T3)
Attending University(b)		2.768	.892		
> University(c)		2.891	.680		
> Graduate School(d)		3.086	1.390		
< High School(a)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2.758	.903	6.948***	d>c>a (Dunnett T3)
Attending University(b)		3.032	.642		
> University(c)		3.343	.650		
> Graduate School(d)		3.886	.430		
< High School(a)	Start-up Intention	2.200	.816	5.190**	d>c>a (Scheffe)
Attending University(b)		2.472	.816		
> University(c)		2.777	.824		
> Graduate School(d)		3.200	.766		

p<.01, *p<.001

5.4.4 월소득에 따른 경제관심도 · 경제이해도 · 합리적소비태도 · 창업의지

분석 결과 500만원 이상이 150만원 이하보다 경제관심도를 더 높게 인식했으며, 500만원 이상-300-500만원-150만원 이하 순으로 합리적 소비태도가 높았고, 500만원 이상-150-300만원-300-500만원 순으로 창업의지가 높았으나, 경제이해도는 월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ormation of Economic View depend on Monthly Income

Indep.	Dep.	M	SD	F	Post Analysis
< ₩ 150M(a)	Interest in Economy	2.169	.642	4.131**	d>a (Scheffe)
₩ 150-300M(b)		2.753	.627		
₩ 300-500M(c)		2.417	.750		
> ₩ 500M(d)		2.924	.973		
< ₩ 150M(a)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2.354	.977	7.353***	d>c>a (Dunnett T3)
₩ 150-300M(b)		3.071	.599		
₩ 300-500M(c)		2.950	.816		
> ₩ 500M(d)		3.500	.750		
< ₩ 150M(a)	Start-up Intention	2.417	1.011	8.457***	d>b>c (Scheffe)
₩ 150-300M(b)		2.306	.631		
₩ 300-500M(c)		2.194	.721		
> ₩ 500M(d)		3.107	.920		

p<.01, *p<.001

<Table 6> Formation of Economic View depend on Economic Knowledge Learning Path

Indep.	Dep.	M	SD	F	Post Analysis
Internet(a)	Interest in Economy	2.516	.675	4.125**	e>a>c (Scheffe)
TV/Radio(b)		2.657	.830		
Acquaintance(c)		2.330	.774		
School(d)		2.636	.612		
Economic Book(e)		3.436	.911		
etc.(f)		3.600	1.131		
Internet(a)	Economic Comprehension	2.273	.763	4.008**	e>c (Scheffe)
TV/Radio(b)		2.324	.637		
Acquaintance(c)		1.965	.489		
School(d)		2.655	.800		
Economic Book(e)		3.036	.885		
etc.(f)		2.100	.141		
Internet(a)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3.086	.734	4.171**	b>c (Scheffe)
TV/Radio(b)		3.467	.793		
Acquaintance(c)		2.687	.687		
School(d)		2.618	.761		
Economic Book(e)		3.564	.774		
etc.(f)		3.300	1.273		

**p<.01

5.4.5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경제관심도 ·

경제이해도 · 합리적소비태도 · 창업의지

분석 결과 경제서적-인터넷-가족/친구/주변인 순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경제관심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경제서적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가족/친구/주변인을 통해 경제지식을 습득한 사람보다 경제이해도가 더 높았다. TV/라디오를 통한 경제지식 습득이 가족/친구/주변인을 통해 경제지식을 습득한 사람보다 합리적 소비태도가 더 높았으나, 창업의지는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검증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기 경제경험이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값을 보면 경제 이해도(.485), 합리적 소비태도(.458), 창업의지(.293) 순으로 청소년기 경제경험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Dependant	β	t	R ²	F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Economic Comprehension	.485	5.706***	.235	32.555***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	.458	5.304***	.210	28.133***
	Start-up Intention	.293	3.141**	.086	9.866**

p<.01, *p<.001

조절효과 검증결과 R제곱과 F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경제 관심도는 청소년기 경제경험과 경제이해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Analysis

Indep.	Dep.	Economic Comprehension				
		β	t	R ²	ΔR^2	F
1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484	5.669***	.234	.234	32.137
2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187	2.044*	.417	.182	37.161
	Interest in Economy	.521	5.704***			
3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300	-1.542	.458	.041	29.042
	Interest in Economy	.007	.033			
	Economic Experience in Adolescence × Interest in Economy	.910	2.808**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관련 경험이 경제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최종 116부의 설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기 경제관련 경험이 경제 이해도, 합리 소비태도 및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기 경제관련 경험과 경제 이해도, 합리적 소비태도 및 창업의지 간의 인과관계에 조절변수로서 경제 관심도가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관 형성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경제 관심도와 경제 이해도의 차이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르바이트, 금전(용돈)관리 등 청소년기 다양한 경제 경험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지식 전달 형이 아닌 놀이와 체험을 통한 실용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험형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경제관 형성에 더욱 효과적임을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Jung-Suk Lee, "The effect of the elementary school economic program experience on young people's economic awareness chan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9.

[2] Hong-Taek Jeon, "Suggestion for school economic education substantialit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3] Hyo-Jin Koo, Jin-Sun Choi,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Adolesc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their Economic Mentality and Labor

- Consciousness”, Vol. 13, No. 4,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pp.39-71, 2006.
- [4]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 Publishing Company, 1975.
- [5] Fitzsimmons Cleo and Williams Flora, “The Family Economic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Edwards Brothers, 1973.
- [6] Kotte, D. and R. Witt., “Chance and Challenge : Assessing Economic Literacy”, In Wilfried, B. and R. H. Lehmann(eds.), Reflections on Educational Achievement, pp. 159-168, New York : Waxmann., 1995.
- [7] Sang-Eun Park, “Economic Literac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U.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4.
- [8] Seong-Rang Kim, “A Research on Plan of Economics Education for Rational Consumption Attitudes of Middl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9] Krueger, N. F. and Carsrud, A. L.,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1 5, No. 3, pp. 315-330, 1993.
- [10] Heung-Su Kim, “A Study on the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5, pp.79-88, 2015.
- [11] Sun-Hee Oh, “A Study about Economic Morality Education : Focus on High School Students’ Economic Ethical Consciousne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12] Young-Gyoung Chu, “A study on consumer attitudes preferred by fostering econom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13] Hae-Young Ma, Influence of economic knowledge of students on rational economic activity : centered on an economic education in a high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4] Sung-Ja Kim, “The Effects of Monetary and Basic Economic Concepts for the Recognition of Young Children by Applying an Economics Education Program that Uses an Allowance Entry B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ook M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5] Guk-Hwa Han,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allowance management attitude through the practical learning of allowance bookkeep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6] Woo-Chul Park,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Orien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7] Jung-Pyo Hong, “A Study on the Start-Up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4.
- [18] Hye-Yeon Woo, “Research on Economic Propensity and Economic Comprehension of Teenag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임 상 호(Lim, Sang Ho)



- 2011년 10월 : KICU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2009년 9월 ~ 2014년 8월 : KICU 대학원 교수(교학처장)
- 2014년 9월 ~ 현재 : 산업진흥원 책임연구위원(공주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2012년 10월 ~ 현재 : (사)청소년 지도학회 회장
- 관심분야 : 통계, 경영학, 기계
- E-Mail : ipi@dreamwiz.com